

# 국내 최초 체험형 'AR 등대' 뒀다

〈증강현실〉

### 군산해수청, 선유도항 방파제등대 방문객 체험형 '소원등대' 앱 출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테마가 있는 선유도항 방파제등대에 증강현실(AR)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소원등대' 앱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유도항 방파제등대는 지난 2008년 12월에 선유도항을 오가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아 두 손을 합장한 모양으로 설치됐으며, 일명 '기도등대'로 알려지면서 꿈과 소원을 비는 명소가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테마로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이달의 등대'로 선정됐다.

군산해수청은 방문객들의 소원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소원을 들어주는 '바다의 용'과 영원히 기록되는 '소원의 벽'을 주제로 국내 최초 등대를 활용한 증강현실 콘텐츠를 제작했다.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출시된 소원등대 앱은 'Play 스토어'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회원가입과 로그인 등 복잡한 절차를 없애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여행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스마트폰에서 소원등대 앱을 실행하고 등대에 비추면 실감나는 3차원 입체영상의 용이 나타나자

신이 적은 소원을 물고 승천하는 모습이 생동감 있게 구현된다.

또 방문객이 남긴 소원은 소원의 벽 같은 자리에 영원히 기록돼 재방문 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SNS처럼 먼저 다녀간 사람들이 남긴 소원을 터치하고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 응원할 수도 있다.

박정인 군산해수청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등대 체험공간을 마련해 새로운 방식의 등대해양문화 창출이 기대된다"면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는 등대처럼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 정읍 순정축협, 조합원 건강검진 큰 호응

### 조합원 전원 2년에 1회 검진

정읍 순정축협(조합장 고창인·사진)은 '조기 건강검진 사업'이 조합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순정축협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2년에 1차례 조기 건강 검진을 실시해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 조합원들의 건강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조합원은 80여명으로 영농여건이 열악하다. 순정축협은 조합원 건강을 우려해 광주에 있는 한국 의학연구원에 건강검진을 의뢰해 조합원 10명의 암 발병을 조기에 발견했다.

한 조합원은 조기 건강검진에서 위 종양이 발견돼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완치됐다.



나머지 조합원들도 치료 중이며, 대부분 조기 발견으로 완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조합원은 "조합원 건강검진으로 조기에 암을 발견해 새 생명을 얻게 됐다"고 감사했다.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은 "축협은 조합원들에 의해 꾸러지고 성장한다. 조합원들이 건강해야 축협도 발전한다"며 "건강하게 다시 조합원 활동을 함께 하자"고 격려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장점마을 주민 "전북도·익산시 암 집단발병 책임져야"

###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 전북도청 앞 기자회견 대책 촉구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가 1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도와 익산시는 모든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익산시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 뒤엔 익산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광주일보 8월10일자 13면)와 관련해 주민들이 행정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장점마을 주민 대책위원회는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결과가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행정기관의 분명한 책임이 드러났다"며 "전북도와 익산시는 모든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6일 감사원은 익산시가 지난 2009년 사용이 금지된 연초박 등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쓰겠다는 금강농산의 신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수리해 발암물질 발생의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만약 익산시가 금강농산의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정기점검을 제대로 해 불법 유기질 비료 생산 사실을 적발했다면 주민 17명이 암에 걸리고 수십명이 암 투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 지적대로 암 집단 발병에 책임이 있는 익산

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익산시를 감독하고, 익산시에 앞서 금강농산의 관리감독을 맡은 전북도 역시 책임이 있다"며 "전북도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참 좋은 순창으로 오세요"...하반기 UCC 공모전

### 군, 11월 30일까지 진행

순창군은 '2020년 순창군 가을 영상 공모전'을 오는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참 좋은 순창으로 오세요'를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은 순창의 문화와 관광 전반에 대해 창작 영상물 발굴과 홍보에 활용하고자 마련했다.

영상은 순창군의 문화예술과 관광자원, 순창군 여행코스(관광지, 먹거리, 즐길 거리 등), 참신하고 독특한 이야기 등을 담아 제출하면 된다.

개인과 단체 등 각 1점씩 제출할 수 있고 영상 분량은 2분에서 3분 이내면 된다.

연령과 지역 제한 없이 순창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이메일(ostiness@korea.kr)로 접수하거나 순창군청 문화관광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순창군은 접수된 작품 중 심사를 거쳐 입선작 10

편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우수 작품에는 300만원, 우수작 2편 각 150만원, 장려작 2편 각 100만원, 입선작 5편 20만원 등 총 9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 작품은 오는 12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다양한 행사 및 홍보 활동, 공식 유튜브 등에서 상영해 순창군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순창군은 앞서 상반기에도 봄 영상 공모전을 개최해 전국의 실력있는 영상 전문가의 작품 총 52편을 접수받아 입선작 10점을 발표했다.

상반기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영상은 영상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의 '순창튜브' 채널에서 조회수 1500회를 기록하며 다시 오고 싶은 순창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공모전이 거듭될 수록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져 심사에 애로를 느낄 정도"라며 "하반기 공모 작품에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순창=장영민 기자 jyg@kwangju.co.kr

# "참조기·대하·소라·우럭...군산수산물 싸게 팝니다"

### 14~16일 군산수산물센터 드라이브스루 20~30% 할인 판매

군산수산물종합센터가 오는 14~16일 오전 10시~오후 6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수산물을 할인 판매한다.

군산시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주최하고 군산수산물종합센터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동차에 탄 채로 구매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 기간에는 20~30% 할인된 저렴한 가격으로 참조기를 비롯해 박대, 대하, 소라, 우럭 등 다양한 군산의 대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판매촉진과 소비경기 진작을 위해 건조기와 안마의자, TV 등 다양한 가전과 생필품 등 풍성한 경품 행사를 마련했다. 인스타그램 인증을 통해 당첨될 경우 군산수산물종합센터의 기획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한가지 수령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된다.

문규범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상인회장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군산수산물종합센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상인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할인행사는 현장에서 즉석 참여도 가능하지만, 원활한 상품 제공과 경품 행사 참여를 위해 사전예약 홈페이지(063baro.com)를 통해 10일부터 참여할 수 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 고창군, 동리대상 후보자 접수...이달 24일까지

### 11월 6일 시상...축하공연도

사단법인 동리문화사업회는 대한민국 판소리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30회 동리대상' 후보자를 이달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동리대상은 고창군과 동리문화사업회가 동리 신재호 선생의 문화예술사적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판소리 진흥에 업적을 남긴 인물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는 대한민국 판소리 부문 최고 권위의 상이다.

후보자 자격은 국가·지방 판소리 무형문화재나 판소리 연구 또는 관련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창작자, 교수, 연구자와 판소리 진흥에 크게 기여한 자(법인 포함)로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동리대상은 심사위원회 비공개 토론 무기명 투표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시상식은 11월6일 오후 2시 동리국악당에서 열



리며수상자와 제자 등이 꾸미는 축하공연도 함께 한다.

판소리성지이자발상지인 고창군은판소리 여섯바탕을 집대성한동리 신재호선생의 유업을계승하고 판소리 발전을 위해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 판소리 버스킹과 체험 등 다양한 계승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